

# 환경사업의 代父

이달우(李達雨) 회장 -下-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 4. 국가 산업발전과 환경대책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킨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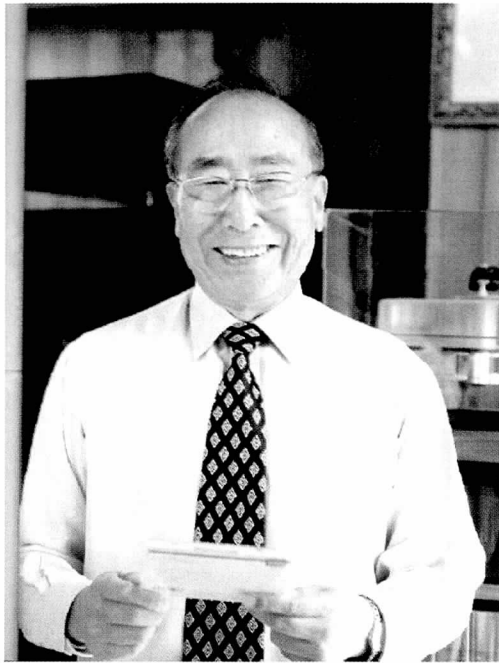
이 칼럼을 통해, 그동안 이달우 회장님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기술했다. 그러나 이달우 회장님이 이룩한 엄청난 업적... 환경대책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도, 필자는 제주도 이야기와 Audio 이야기만을 썼다.

까닭은 세상이 알고 있는 산업인으로서의 사업가로서의 환경인으로서의 이달우 회장님뿐만 아니라, 수애의 사랑이 제주도에 엄청난 자연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와 산업인이 안 되셨으면 큰 음악가가 되셨을 대단한 귀(청음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애써 사회적 공적을 미룬 것이다.

이제, 이 연재도 끝낼 때가 되어, 이달우 회장님의 진면목이라고 할까? 그런 면을 정리한다. 사실, 이달우 회장님의 사회적 업적은 한 권의 책으로 쓰기에도 모자랄 정도다. 그 단적인 예는 이달우 회장님께서 이룩해 놓은 '한국코트렐'이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한국코트렐(주) [Korea Cottrell Co., Ltd.]: 1978년 미국 리서치코트렐 회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1983년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발전소, 1986년 포항종합제철소 등에 전기집진설비를 수주하였다.

1990년 대만전력공사 Talin & Hsinta 화력발전소, 1992년 대만전력공사 Shen-Ao 화력발전소? 등에 전기집진설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본, 태국, 중국 등에서 설비공사를 수주하였다.



1993년 환경과학기술 부문에서 제 1회 환경대상을 받았고 1996년 ISO9001 인증을 받았으며 필리핀 합작 법인을 설립하였다. 1996년 한국 전력공사 당진화력발전소 배연탈황 설비공사, 2002년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 오리멸전 연료전환 설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200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로 탈황설비공사 등을 수주하였다. 고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환경인들이 알고 있는 '환경사업의 대부' (국내 최초로 전기집진기를 완성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plant를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환경대책 기술의 우수성을 빛내신 점)로서의 이달우 회장님에 앞서, 이 나라의 국가발전에 끼친 '한국산업의 대부'로서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필자가 이달우 회장님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것은 대학(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후, '조선전업주식회사(현, 한국전력)'에 입사해, 발전기사로 6.25한국전쟁에 초토화된 국내(특히, 당시 38선 이북 수복지역인 '화천발전소') 발전설비의 복구와 재건에 종사한 점이다.

산업의 동력은 전기라는 측면에서, 이달우 회장님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본적으로 기여한 것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산업발전이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환경인' 이달우 회장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 후 1962년에 '마산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 설치공사를 담당하던 Research Cottrell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전기집진 연구 및 개발에 평생 종사하게 된 것은 꽤저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발전설비 분야의 모든 주요 부품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공사 책임자도 외국인 기술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국가의 기간산업인 발전시설 건설과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경대책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장비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968년 '군산화력발전소'에 순수 국내 기술 최초로 6만 kW급 전기집진설비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것은 경이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